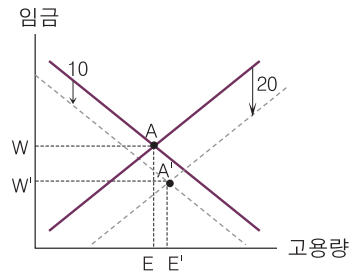


## 41. 정답 ③

의료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면, 개인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두 배가 되더라도 동일한 양의 의료 서비스를 수요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곡선은 의료 서비스 수요곡선의 지불용의가격이 모두 두 배로 상승한 ㉠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 결과를 수식으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P$ , 수요량을  $Q$ 라고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기 전의 수요곡선이  $P=a+bQ$ 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했을 때 새로운 수요곡선은  $0.5P=a+bQ$ , 즉  $P=2a+2bQ$ 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요곡선은 ㉠과 같은 모양이 된다.

## 42. 정답 ③

직장의료보험이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아래 방향으로 20만 원만큼 평행 이동한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20만 원 적게 받아도 20만 원어치의 직장의료보험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반면에 직장의료보험이 사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이 아래로 10만 원만큼 평행 이동한다. 즉, 사용자는 10만 원의 직장의료보험 제공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임금이 10만 원 낮아질 경우에 동일한 노동력을 고용할 용의가 있다. 공급곡선이나 수요곡선의 하방 이동은 균형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며, 공급곡선이 하방 이동한 폭이 수요곡선이 하방 이동한 폭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균형 고용량이 증가한다.



## 43. 정답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높이는 '가격 차별' 전략에 관한 문제다. 전단지에서 쿠폰을 오려오는 수고를 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이들에게 싼값을 제시하면 판매량이 늘어난다. 동일한 통신 서비스를 다른 요금으로 판매하는 독점 통신사업자 역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개인과 기업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다. 그러나 흠이 생긴 양복,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 보급형 합판 기타 등은 '동일한 상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B이발소의 무료 이발 서비스는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 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 1. 정답 ⑤

그림은 지출 비중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방 관련 예산이나 전체 예산의 절대적인 지출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 2. 정답 ④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가입한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르게 통화하며, 모든 통화로부터 동일한 편익을 얻으므로, 통화료 부담의 변화만 고려하면 된다. (가)의 통화료 체계에서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하여 동일한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와 다른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 비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통화료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의 통화료 부담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특별히 통신사를 변경할 유인이 없다. 반면, (나)의 통화료 체계에서는 가입자의 일부가 빠져서 통신사 가입자의 통화료 부담은 늘어나고, 가입자가 늘어난 통신사의 기존 가입자의 통화료 부담은 감소한다. 또한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통화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A텔레콤으로 가입자가 옮겨갈 유인이 생기고 A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한다.

3. 정답 ②

인절미와 수정과는 완전 보완재로서 2접시의 인절미와 1잔의 수정과가 한 묶음으로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절미와 수정과의 가격이 각각 500원, 800원일 때 이 묶음의 가격은 1,800원이고, 2,800원의 소득이 있으면 한 묶음만을 소비할 수 있어 2접시의 인절미와 1잔의 수정과를 사 먹는다. 인절미 가격이 250원이 되면, 이 묶음의 가격은 1,300원이고, 3,100원의 소득으로 2묶음까지 소비할 수 있어 4접시의 인절미와 2잔의 수정과를 사 먹는다.

4. 정답 ④

묶음 판매를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다. 묶음 판매는 개별 소비자의 유형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판매자는 가격이 다른 두 개의 묶음을 제시하여, 지불 의사가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다른 묶음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문제에서 조권이 (가)~(다)에서 8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은 음(-)이지만, 5개 혹은 3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은 0이 되므로, 조권은 5개 혹은 3개 묶음을 구매한다. 반면, 가인은 (가)에서 8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보다 5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이 크므로 5개 묶음을 구매하지만, (나)~(다)에서는 8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이 5개 혹은 3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순편익보다 커지므로 8개 묶음을 구매한다. 판매수입은 (가)에서 60만 원, (나)에서 71만 원, (다)에서 77만 원으로 (다)에서 가장 크며, (나)~(다)에서 조권의 순편익은 0이지만, 가인의 순편익은 항상 양(+)이다.

5. 정답 ④

생애소득가설을 고려할 때, 소득 또는 부의 증가, 이자 비용 감소 등은 생애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동일한 생애소득을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반면 조세 부담의 증가는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6. 정답 ①

영구와 맹구가 100일 동안 책상만 만들 경우 모두 300개(영구 100개, 맹구 200개)의 책상을, 의자만 만들 경우 모두 300개(영구 200개, 맹구 100)의 의자를 생산할 수 있다. 맹구가 책상만 만들고 있을 때 영구가 의자 1개를 만들려면 영구는 0.5개의 책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가 의자만 만들고 있을 때 맹구가 책상 1개를 만들려면 맹구는 2개의 의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100일 동안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하는 경우에 영구는 의자 200개를, 맹구는 책상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가능한 점들의 조합을 좌표 위에 찍어보면 ①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다.

7. 정답 ③

방송국이 각각 다른 내용을 방송하면 가장 많은 수의 국민이 시청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을 하게 되면 모두 축구를 방송하게 될 것이다. 축구를 방송하면 최소한 35%의 시청률을 기록하지만, 발레를 방송하면 최대 30%의 시청률밖에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정답 ②

그림에서 노동 투입량과 쌀 생산량의 관계는 오목한 곡선으로 나타난다. 즉, 노동 투입량을 추가적으로 1명 늘릴 때의 쌀 생산량의 증가인 한계생산이 노동 투입량이 많을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한계생산체감' 이라고 하는데, 토지처럼 고정된 투입요소가 존재할 경우 가변적 투입요소인 노동과 총생산 간에 흔히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③뿐이다. ①의 경우는 노동투입과 생산이 비례하는 상황을, ②, ④, ⑤는 노동 투입량이 많을수록 한계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9. 정답 ⑤

가격을 3만 원으로 할 경우 모든 가구가 구입하므로 수요량은 1만 대이고, 따라서 이윤은  $1만 \times (3만 원 - 1만 원) = 2억 원$ 이다. 3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경우 고소득 가구만 구입하여 수요량이 8천 대로 동일하므로, A사는 1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이때 이윤은  $8천 \times (10만 원 - 1만 원) = 7억 2천만 원$ 이 된다. 따라서 10만 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이다.

## 10. 정답 ③

이제 A사가 저소득 가구에 2만 원의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모든 저소득 가구는 2만 원에 정수기를 구입한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는 이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입을 못하였지만 이제는 구입을 하게 되어 1만 원( $=3\text{만 원}-2\text{만 원}$ )의 순편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미영의 말은 옳다. 한편, A사는 나머지 고소득 가구에게 여전히 10만 원의 가격을 매길 것이므로 고소득 가구의 후생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영희의 말은 옳지 않다. 끝으로, A사의 이윤을 생각해 보면 저소득 가구로부터  $2\text{천} \times (2\text{만 원}-1\text{만 원})=2\text{천만 원}$ , 고소득 가구로부터  $8\text{천} \times (10\text{만 원}-1\text{만 원})=7\text{억}2\text{천만 원}$ , 합쳐서 7억4천만 원의 이윤을 얻는다. A사의 이윤은 증가하고, 따라서 철수의 말은 옳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영수의 말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 가구의 편익은 그대로이고 저소득 가구의 편익 및 A사의 이윤은 증가하였으므로, A사의 방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 11. 정답 ④

이윤은 판매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각 생산량 수준에서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수량	이윤
1	$20 \times 1 - 20 = 0$
2	$19 \times 2 - 25 = 13$
3	$18 \times 3 - 30 = 24$
4	$17 \times 4 - 35 = 33$
5	$16 \times 5 - 45 = 35$
6	$15 \times 6 - 65 = 25$

따라서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은 5이다.

## 12. 정답 ⑤

각 유형의 사람의 수가 같으므로 편의상 한 명씩 있다고 하자. 50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면 지불용의금액이 50만 원인 사람만 구매하므로 (주)꽃내음의 이윤은  $50 - 10 = 40\text{만 원}$ 이 된다. 25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면 지불용의금액이 50만 원인 사람과 25만 원인 사람이 구매하므로 이윤은  $2 \times (25 - 10) = 30\text{만 원}$ 이 된다. 끝으로 15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면 모든 사람이 구매하므로 이윤은  $3 \times (15 - 10) = 15\text{만 원}$ 이 된다. 따라서 (주)꽃내음은 가격을 50만 원으로 책정할 것이다. 50만 원의 가격에 판매를 마치면 지불용의금액이 25만 원인 사람과 15만 원인 사람이 남는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추가 이윤이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5만 원의 가격에 판매를 마치면 지불용의금액이 15만 원인 사람만 남으므로 가격을 15만 원으로 제시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 13. 정답 ②

(주)꽃내음이 일단 높은 가격에 판매한 후에 남은 수요자들에게는 점차 가격을 낮춰 판매할 것을 예상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늦추려 할 것이다. 따라서 (주)꽃내음이 최초에 5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아무도 구매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꽃내음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A마을에서와 같은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된다.

## 14. 정답 ⑤

(주)꽃내음이 처한 상황은 내구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내구재는 일단 구매하면 그 편익을 장기간 누릴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곧 구매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다소간의 편익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구매를 늦추려고 할 것이고, 독점 기업은 의도하는 만큼의 물건을 독점 가격에 팔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독점 기업으로서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가격을 낮춰 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점 기업은 추가 판매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①, ③), 추가 판매를 매우 늦추거나(④), 스스로 가격 인하를 할 유인이 없도록 판매 정책을(②) 취할 수 있다.

15. 정답 ③

요구르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비싸진 요구르트의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초콜릿의 소비를 늘리려 한다.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요구르트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줄어들에 따라 정상재인 두 재화 모두의 소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요구르트의 경우 두 효과가 모두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초콜릿의 경우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16. 정답 ②

사회적 비용은 예상손실액과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합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때 최소화된다. 가해자가 주의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개인적 비용은 주의하면  $0.5 \times \text{예상손실액}(12) + \text{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2) = 8$ 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0.5 \times \text{예상손실액}(15) = 7.5$ 이다. 가해자가 주의할 때 피해자의 개인적 비용은 주의하면  $0.5 \times \text{예상손실액}(7) + \text{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2) = 5.5$ 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0.5 \times \text{예상손실액}(10) = 5$ 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행 법률하에서는 모두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17. 정답 ②

- ㄴ. 헤린이 2시간을 공약하고 동철이 3시간을 공약한다면, 0~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헤린에게, 3~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동철에게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헤린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 ㄷ. 동철이 5시간을 공약하면 모든 학생이 50%의 확률로 동철에게 투표하므로 학생의 절반이 동철에게 투표한다고 할 수 있다. 동철이 4시간을 공약하면 0~4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동철에게 투표한다. 따라서 4시간을 공약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 ㄹ. 동철이 1시간을 공약할 때 헤린이 2시간을 공약하면 2~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헤린에게 투표한다. 3시간을 공약하면 3~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과 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의 절반(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이 50%의 확률로 동철에게 투표)이 헤린에게 투표한다. 따라서 2시간을 공약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18. 정답 ③

동철이 0시간 혹은 1시간을 공약하면 헤린은 동철보다 1시간 더 많은 시간을 공약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동철이 3, 4, 5, 6시간을 공약하면 헤린은 동철보다 1시간 더 적은 시간을 공약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동철이 2시간을 공약하면 같은 2시간을 공약하는 것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동철에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철과 헤린 모두 2시간을 공약하게 될 것이다.

\*적은 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부터 줄을 세운다면 560명의 절반인 280번째 또는 281번째 학생(이를 '중위 투표자'라 한다. 중위 투표자란 중간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두 대안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결 투표의 결과는 이 투표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은 2시간을 선호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논리에 따라 두 명의 후보는 모두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시간을 공약할 것이다.



## 19. 정답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예로 들어, 도입 초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구기술에 비해 열등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는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 문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A점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A점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의 (가)는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낮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 초기에는 이에 대한 수요량이 적고 단위 생산비용이 높아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탄소세 부과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높여 (가)를 위로 이동시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으로서 (나)를 아래로 이동시킨다. (가)와 (나)의 이동에 따라 A점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A점의 좌측 이동은 정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0. 정답 ③

(가) 방식의 1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A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2차 투표에서는 셋 모두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3차 투표에서는 병이 지지하는 D안을 누르고 갑과 을이 지지하는 B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것이다. 한편 (나) 방식의 1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C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D안이 선택되고, 2차 투표에서는 병이 지지하는 D안을 누르고 갑과 을이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3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A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B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것이다.

## 21. 정답 ⑤

갑의 거부권 행사로 을의 1순위였던 B안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을은 자기의 2순위인 A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을이 C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병이 A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D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을은 D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병이 남은 A안과 C안 가운데 C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A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될 것이다. 20~21번 문제로부터 개인들의 선호가 정해져 있을 때도 투표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정답 ②

제시된 방법에 따르면 자신의 세뱃돈이 평균보다 적으면 세뱃돈 전체를 거두어 나누는 것이 좋고, 반대로 평균보다 많으면 자신의 세뱃돈을 그냥 가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세뱃돈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은  $t=1$ 을 가장 선호하고 평균보다 많은 사람은  $t=0$ 을 가장 선호한다.

## 23. 정답 ⑤

22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소득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은  $t=0$ 을 써내고 평균보다 많은 사람은  $t=1$ 을 써낼 것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는 소득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소득 순위에서 중간인 사람의 소득이 평균보다 적으면  $t=1$ 이, 평균보다 많으면  $t=0$ 이 소득세율로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 24. 정답 ③

1억 원을 얻기 위해 이미 보장된 6천만 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한 강호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에서 로또를 구입하는 행위 역시 당첨을 기대하며 복권 구입에 쓴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나머지 선택지들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행위들을 보여 주고 있다.

25. 정답 ②

중찬이에게 별다방 커피와 콩다방 커피는 완전 대체재다. 별다방 커피 2잔의 비용은 8,000원, 콩다방 커피 3잔의 비용은 6,000원이므로, 콩다방 커피를 마실 경우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콩다방 커피만 소비한다.

26. 정답 ①

자료에서 제시된 숫자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다. (주)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수로전자는 매월 10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2만 원에 팔고 이때 대당 평균비용은 1만2천 원이므로 매월 80만 원의 이윤을 얻는다. 반면, (주)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 생산량을 150대로 늘리면 매월 95만 원의 이윤을 얻게 되므로,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해 이윤이 증가한다. 비록 수경과의 거래에서는 대당 1천 원씩 월 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생산량의 증가로 대당 평균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는 대당 2천 원씩 월 20만 원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라고 한다.

27.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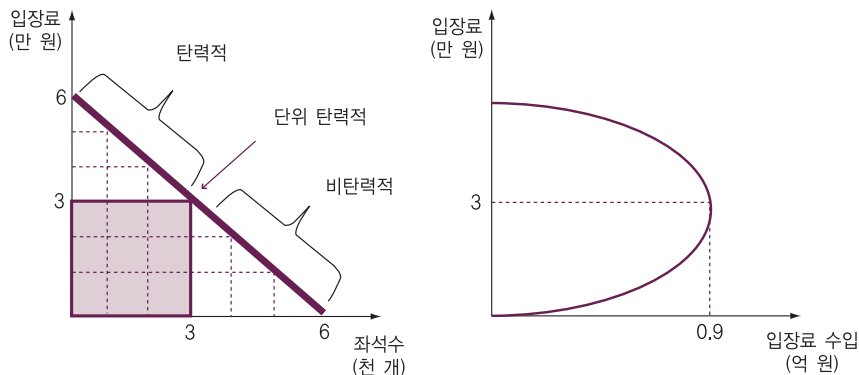
이 문제는 경제주체의 목적이 다르면 최적 의사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에서 동건출판사는 '찰리 포터'의 독점공급자로서 출판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이윤=판매수입-인세-관련비용=0.5×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다. 반면, 서영은 판매수입이 커질수록 인세가 늘어나므로 현재보다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 ③에 제시된 방식은 동건출판사의 가격책정 방식에 비해 판매수입을 더 고려함으로써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28. 정답 ④

①의 방안을 따르면 출판사가 서영에게 인세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동건출판사의 이윤이 줄게 되고, ②의 방안을 따르면 동건출판사가 '판매수입-인세=0.5×판매수입'을 극대화하게 되어 동건출판사와 서영의 이해관계가 바뀔 뿐 추가적인 이익은 생기지 않는다. ③의 방안을 따라 인세 비율을 올리면 동건출판사는 판매수입을 덜 고려하게 되어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수입-관련비용'이 감소하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반면, 동건출판사와 서영은 '판매수입-관련비용'을 이윤과 인세로 나누어 가지므로 '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 후에 이를 적절히 분배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인세를 '판매수입-관련비용'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정답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다. (주)와이유의 입장료 수입은 좌석당 입장료에 총 관람객 수를 곱한 값이다. 그림과 같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인상이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탄력적이면 가격 인하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내 관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의 극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가운데 점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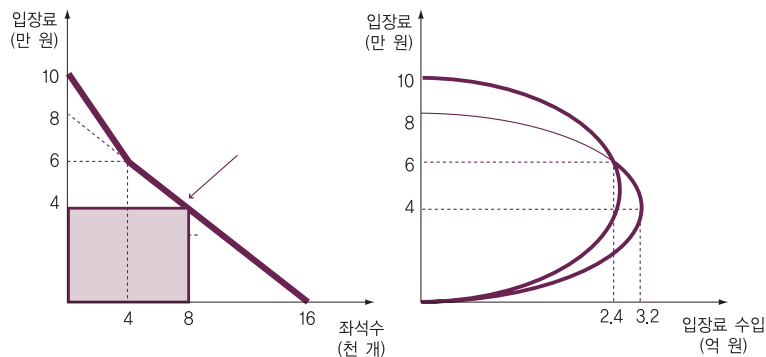
## 30. 정답 ④

국내 관객과 일본 팬클럽 회원에게 서로 다른 입장료를 받을 경우 (가)와 (나)에 나타난 두 그룹 각각에 대해 수입을 극대화하게 된다. 29번의 결과를 적용하면 그 결과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입장료	관람객 수	입장료 수입
국내 관객 (A)	3만 원	3천 명	0.9억 원
일본 팬클럽 (B)	5만 원	5천 명	2.5억 원
합계 (A+B)	-	8천 명	3.4억 원

## 31. 정답 ③

이 경우에는 (다)에 나타난 총 관객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용하여 수입 극대화를 하는 입장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입장료가 6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일본 팬클럽 회원만 관람하게 되는데, 동 구간에서 수요는 탄력적이므로 입장료를 낮출수록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다. 한편, 입장료가 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의 결과를 이용하면 총 관객에 대한 수요 곡선식인  $P = -(1/2) \times Q + 8$ 의 중점인 (입장료, 관람객 수) = (4만 원, 8천석)에서 수입(3.2억 원)이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입장료가 4만 원일 때 입장료 수입은 3.2억 원으로 가장 커진다.



## 32. 정답 ④

사람들의 선호관계를 알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채택되도록 전략을 설계하는 문제다. 왓슨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자연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 다수결 투표에서 14대7로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12대9로 생태공원이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12대9로 현상유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①, ③과 같이 풍력발전소나 자전거도로를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염색공단이 개발안으로 채택되어 결국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며, ②와 같이 아파트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1단계에서 아파트단지가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아파트단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 33. 정답 ③

만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명만 공원 건설을 찬성할 것이므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공원 건립이 불가능하다. 반면,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 이하라면 언제나 과반수의 주민이 찬성하게 되므로 공원 건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원 건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비용은 3,000만 원(=4만 원×750명)이다.

34. 정답 ④

묶음 판매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 및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묻는 문제다. 분리 판매를 할 경우, 양지유선방송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 유형의 소비자만 각각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터넷 서비스에 50만 원, 케이블TV 서비스에 40만 원을 제시하고 노년층은 케이블TV 서비스만을, 청년층은 인터넷 서비스만을 구입하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은  $(50-5) \times 10 + (40-10) \times 10 = 750$ 만 원이 된다. 반면, 묶음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묶음 서비스의 가격을 60만 원으로 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를 서비스에 가입하게 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며, 이때의 이윤은  $(60-15) \times 20 = 900$ 만 원이 된다. 따라서 묶음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을 높이는 방안이다. 묶음 판매의 경우 노년층은 분리 판매의 경우와 같이 지불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을 지불하므로 후생의 변화가 없지만 청년층은 지불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인 65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분리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35. 정답 ⑤

모든 주민은 MP3 플레이어 구입의 순편익(=편익 4,000원-가격 1,000원-상점까지 다녀오는 비용)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를 구입할 것이다. B, D지점 주민은 상점까지 다녀오는 비용이 0이므로 순편익이 가장 크고, B, D의 중간에 있는 C지점 주민은 어느 상점에 가더라도 순편익이 같다. 주민들은 보다 가까운 상점에서 구입할 것이므로, A~C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갑에서, C~E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을에서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두 상점의 매출액은 같을 것이다. 상점 갑, 을이 각각 A, B지점으로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A~C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갑에서, C~E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을에서 구입할 것이므로 매출액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36. 정답 ③

한 상점이 가장 많은 주민에게 MP3 플레이어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국토의 중간인 C지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두 상점에게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두 상점 모두 C지점으로 옮기게 된다. 한 상점이 C지점에 있을 때, 다른 상점의 위치가 C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른 상점도 C지점으로 옮김으로써 고객을 늘릴 수 있다. 두 상점의 이동에 따라 B, C의 중간점과 C, D의 중간점 사이에 있는 인구 1/4에 해당하는 주민은 이전보다 상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순편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B, C의 중간점보다 왼쪽에 있거나 C, D의 중간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인구 3/4에 해당하는 주민은 이전보다 상점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순편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줄어든 순편익이 늘어난 순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순편익의 합계는 두 상점의 위치가 C로 이동한 후에 감소할 것이다.

37. 정답 ④

신발을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면 국민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100원을 요구할 것이다. A와 B가 모두 시장에 진입하면 가장 높게 요구할 수 있는 가격 100원을 요구하여 시장을 양분하더라도 높은 기계 구입 가격 때문에 손실을 본다. 따라서 이미 진입한 기업이 존재하면 어떤 기업도 신규로 진입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38. 정답 ③

A가 독점권을 가져 얻을 수 있는 이윤은 4,000원이므로 허가권을 얻기 위해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같은 이유로 B도 2,5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를 아는 A는 B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허가권을 얻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A가 허가권을 얻으며, 허가권 구입 가격으로 독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일부를 정부에 내게 된다.

39. 정답 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민은 다른 주민들이 얼마를 기부하는지에 관계없이 전혀 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보기 위해 어느 한 주민이 X원을 기부할 경우 그 주민의 순편익에 대해 생각해보자. X원을 기부하면 유통업체에서도 X원을 기부하므로 기금은 총 2X원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이 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의 증가분은 2X/N원이다. 그런데  $N > 2$ 이므로 2X/N원은 반드시 X원보다 작다. 즉, 기부한 금액이 이 기부를 통해 증가하는 자신의 몫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 주민은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 40. 정답 ③

주택 리모델링 비용이 1,000만 원이므로 주택 리모델링에서 900만 원의 편익을 얻는 사람들은 주택을 리모델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안전 진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 리모델링에서 1,100만 원의 편익을 얻는 사람들은 주택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과 안전 진단 서비스의 가격(A)을 합한 값이 1,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즉 A가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절반은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 리모델링에서 1,100만 원의 편익을 얻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A가 100만 원보다 크면 주택 리모델링에 따르는 전체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되어 주택을 리모델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 41. 정답 ④

둘리와 바니를 구별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우선 각자의 지불용의금액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식이다. 둘리의 경우 고급 좌석에서 지불용의금액과 운영비용의 차이가 최대가 되고 바니의 경우 최고급 좌석에서 최대가 되므로, 둘리에게는 35만 원에 고급 좌석을 제공하고 바니에게는 70만 원에 최고급 좌석을 제공하는 것이 이윤을 최대화한다.

## 42. 정답 ⑤

둘리와 바니가 제시된 요금 체계 하에서 어떤 좌석 등급을 선택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①의 경우 둘리와 바니 모두 고급 좌석을 이용할 것이고, 이윤은  $(35-20) \times 100 = 1,500$ 만 원이다. ②의 경우 바니만이 최고급 좌석을 이용할 것이고, 이윤은  $(70-30) \times 50 = 2,000$ 만 원이다. ③의 경우 둘리는 일반 좌석을 바니는 고급 좌석을 선택할 것이며, 이윤은  $(22-10) \times 50 + (42-20) \times 50 = 1,700$ 만 원이다. ④의 경우 둘리와 바니 모두 고급 좌석을 선택하며 (바니의 순편익은 고급좌석을 선택할 때 15만 원으로, 최고급 좌석을 선택할 때보다 크다), 이윤은 ①과 같다. ⑤의 경우 둘리는 일반 좌석을 바니는 최고급 좌석을 선택하며, 이윤은  $(22-10) \times 50 + (62-30) \times 50 = 2,200$ 만 원이 된다. 따라서 ⑤의 방식이 이윤을 최대화한다.

## 43. 정답 ②

차별이 금지되었을 때 둘리가 사용하는 좌석의 등급은 낮아지고 순편익에는 변화가 없다. 바니가 사용하는 좌석의 등급은 변하지 않았으며, 순편익은 증가하였다. 용가리항공은 지불용의금액을 모두 요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윤은 감소한다.

## 44. 정답 ④

②와 ③의 경우 A구의 재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A구 시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할 유인이 없다. ⑤의 경우 C구의 재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C구 시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할 유인이 없다. ④의 경우 B구와 C구의원이 시장의 제안보다 대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안이 채택될 것이다. ④와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①은 나타날 수 없다.

## 45. 정답 ⑤

어떤 재정계획이 기본안으로 상정되더라도 두 시의원이 연합하여 다른 구에 배정된 예산을 나누어 가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재정계획도 최종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 46. 정답 ③

S를 1년 후의 환율이라 하면, 노명이가 원화와 엔화로 대출할 경우에 대한 이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원화: 150만 원 - 100만 원  $\times (1+0.21)$

- 엔화: 150만 원 - 10만 엔  $\times (1+0.10) \times S$

노명이는 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두 경우의 이익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1년 후의 환율은 1,100원/100엔임을 알 수 있다.

47. 정답 ④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연봉 100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 40을 제외한 60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때의 수입이 60보다 작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48. 정답 ②

수일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30(=100-70)$ 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X$ 다. 따라서 수일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은  $X \geq 30$ 이다. 순애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60(=100-40)$ 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X$ 다. 따라서 순애가 자격증을 취득할 조건은  $X \leq 60$ 이다.

49. 정답 ④

㉠의 방식을 따르면 수일의 순수입은 50, 순애의 순수입은 60이고, ㉡의 방식을 따르면 수일과 순애의 순수입은 모두 75이다. 따라서 수일과 순애 모두 ㉡의 방식을 선호한다. 한편 (주)꼬끼오 식품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총 150의 비용이 들므로 두 방식 간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의 방식이 우월하다.

50. 정답 ④

이 문제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A기업이 1만 원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하면 B기업은 자사 가치가 0원이거나 1만 원일 경우에만 인수에 동의하고, 2만 원일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A기업이 생각하는 인수 확률은  $2/3$ 이고 A기업이 기대하는 이득은  $\frac{1}{3} \times (0 \times 1.5 - 1) + \frac{1}{3} \times (1 \times 1.5 - 1) = -\frac{1}{6}$ 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A기업이 2만 원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해도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기업은 인수 가격으로 0원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인수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도 0원이다.

## 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1. 정답 ⑤

경기변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다. 예상되지 못한 정책 변화나 유가 변동 등 대내외적인 충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반응함에 따라 경기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경기변동의 주기와 폭은 대내외적인 충격의 크기나 성질, 그리고 경제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쌀과 같은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자동차 등 내구재보다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변화한다.

2. 정답 ②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지출, 민간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재고변화),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의 합과 같다.

3. 정답 ④

투자의 개념에 대한 문제다.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변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장 증설이나 주택 건설은 건설투자에 해당된다. 우리 경제의 전체 투자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에 사용된 재화가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식당의 식기 수입도 설비투자로 간주된다. 반면, 주식매입은 '주식투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상관없는 금융자산 거래이므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국민소득계정의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